울고 넘는 보험고개… 10년來 최악 성적표

금감원, 지난해 생·손보 실적

생보사 작년 당기순이익 3조1140억
손보사 32% 감소한 2조2227억원
"외형확대 위한 과열경쟁 지양해야"

〈주요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8년 1~12월(A)	19년 1~12월(B)	증감 (C=B-A)	증감률(C/A)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	40,325	31,140	△9,185	△22.8
	보험영업이익	△236,378	△244,198	△7,820	손실확대
	투자영업이익	241,129	239,014	△2,115	△0.9
	영업외이익	48,735	44,708	△4,027	△8.3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	32,538	22,227	△10,311	△31.7
	보험영업이익	△31,321	△60,211	△28,890	손실확대
	투자영업이익	77,362	91,294	13,932	18
	영업외이익	△1,931	△942	989	손실축소
계		72,863	53,367	△19,496	△26.8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6.8% 감소하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496억원(26.8%) 줄었다.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3조1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85억원(22.8%) 감소했다.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로 인해 보험영업손실이 7820억원 확대됐고, 2018년 삼성전자 주식처분이익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투자영업이익도 2115억원 감소했다.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2조22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11억원(31.7%) 감소했다. 투자영업이익은 1조3932억원 증가했으나 장기보험 사업비 증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이 2조889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12조7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512억원(5.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117조2624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4193억원(5.8%) 증가했다. 일반계정저축성보험(31조7280억원)은 1조9242억원(5.7%) 감소한 반면 보장성보험(43조2084억원)은 1조7245억원(4.2%) 증가한 결과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95조4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4319억원(4.9%) 늘었다. 장기(2조5260억원↑), 자동차(8475억원↑), 일반(3735억원↑), 퇴직연금 등(6849억원↑) 전 종목에서 원수보험료 규모가 3.9~5.1% 확대됐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지난해 보험회사 총자산이익률(ROA)은 0.45%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 손보사는 각각 0.35%, 0.72%로 같은 기간 0.13%포인트, 0.41%포인트 떨어졌다.

보험회사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41%로 전년 대비 2.25%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 ROE가 5.55%에서 3.87%로 1.68%포인트 하락했고, 손보사 ROE도 8.86%에서 5.48%로 3.38%포인트 내렸다.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238조916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3조6781억원(7.2%)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29조9865억원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증가(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전년 말 대비 17조7892억원(15.9%)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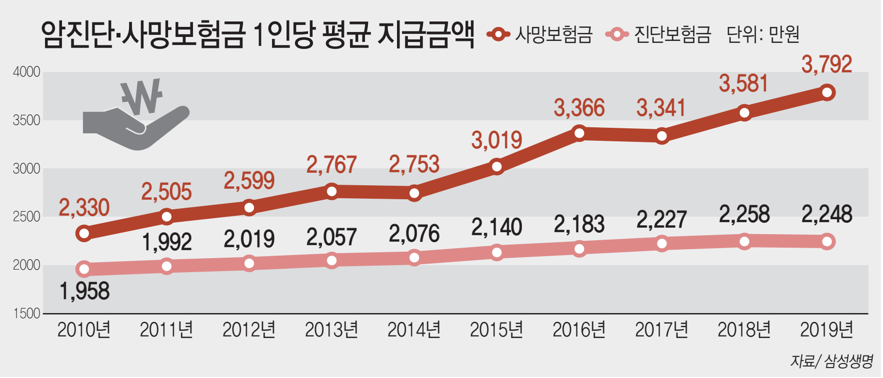
금감원 관계자는 "저성장·저출산·저금리의 3중고에 직면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업위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하로 초저금리 진입이 예상돼 투자수익률도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외형확대만을 위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경영을 추구하도록 감독,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속 증가… 10년간 12조

진단보험금 6조7852억… 절반 이상
사망보험금 지급 고객 7만3000명
1인당 평균 암 진단보험금도 증가세



삼성생명이 최근 10년간 암 보험금으로 12조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암 진단·수술·사망 등 각종 암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총 12조27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암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진단보험금이 10년간 6조7852억원(5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보험금 2조2195억원(18.1%), 암 수술비 1조3980억원(11.4%) 순이었다. 또 암 진단을 받은 고객은 약 32만명이었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고객은 7만3000명이었다.

삼성생명의 암 진단 및 사망보험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암 진단보험금 지급건수는 2010년 2만9000건에서 2019년 3만6000건으로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암 사망보험금 지급건수도 6785건에서 7643건으로 13% 늘었다.

1인당 평균 암 진단보험금과 암 사망보험금도 늘고 있다. 삼성생명의 1인당 평균 암 진단보험금은 2010년 1958만원에서 2019년 2248만원으로 15%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암 사망보험금은 233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63% 늘었다.

암 진단 건수는 남성의 경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순으로 많은 반면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암 진단이 증가했는데, 특히 남녀 모두 췌장암과 폐암 진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췌장암 진단건수는 남성이 119% 여성은 173%가 늘었고, 폐암 진단건수도 남성이 76%, 여성은 128%가 늘었다.

암 진단과는 별도로 암 사망보험금 지급건수는 폐암, 간암, 위암 순으로 많았다. 2010년 1327건으로 1위였던 간암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1110건을 기록했다. 반면 폐암은 같은 기간 26.6% 늘어난 1432건을 기록하며 사망건수 1위를 기록했다.

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컸다. 남성은 간암, 폐암, 위암 사망이 많았고 여성은 유방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았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연령 및 암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평균 5000만~6000만원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암 보험금 지급통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의학의 발전으로 암 생존율이 올라가고 정부의 중증질환보장 강화로 직접의료비 부담은 낮아지고 있지만 암 발병 시 발생하는 휴직, 실직, 폐업 등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충분한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고객행동 예측… 금융 '超개인화' 추진

고객군별 마케팅 모델 개발
거래채널 이용시점 등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의 초(超)개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의 초개인화란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된 다수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군별 마케팅 모델을 개발했다. 고객군별 은행거래 유입·이탈 패턴을 파악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우리은행은 모든 거래채널의 이용 시점 및 선호도 등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WON뱅킹의 디지털 로그(Log)를 전면 개편하여 고객 행동패턴 분석과 고객 여정 분석을 진행해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채널을 완성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성·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한다. 수천만 건의 고객센터 음성 상담내역, 영업점 직원이 입력한 고객상담 내용, 고객이 남긴 자금용도 자료 등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분석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활용해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해 금융서비스의 초개인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銀 대구·경북지역 고객 기본 통신료 면제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리브엠(Liiv M)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기본료를 면제한다. 지원대상은 유심(USIM) 배송지 주소지가 대구·경북인 고객이며, 기존 리브엠 가입자 뿐만 아니라 4월 30일까지 개통을 완료한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존 대구·경북 고객에게 안내되며, 리브엠 모바일 웹페이지 메인 팝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국민은행 리브엠은 지난 2월 중국 우한에서 입국 후 격리 수용된 교민에게 총 800개의 유심을 제공해 무료 통신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통신비 지원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고객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銀-中企기술정보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총 1100억 한도 업체당 5억 이내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에 총 11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최대 1.8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경영안정 특별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R&D 수행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7일 "앞으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